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06 / 도동서원

위성사진 / 평면도 / 단면도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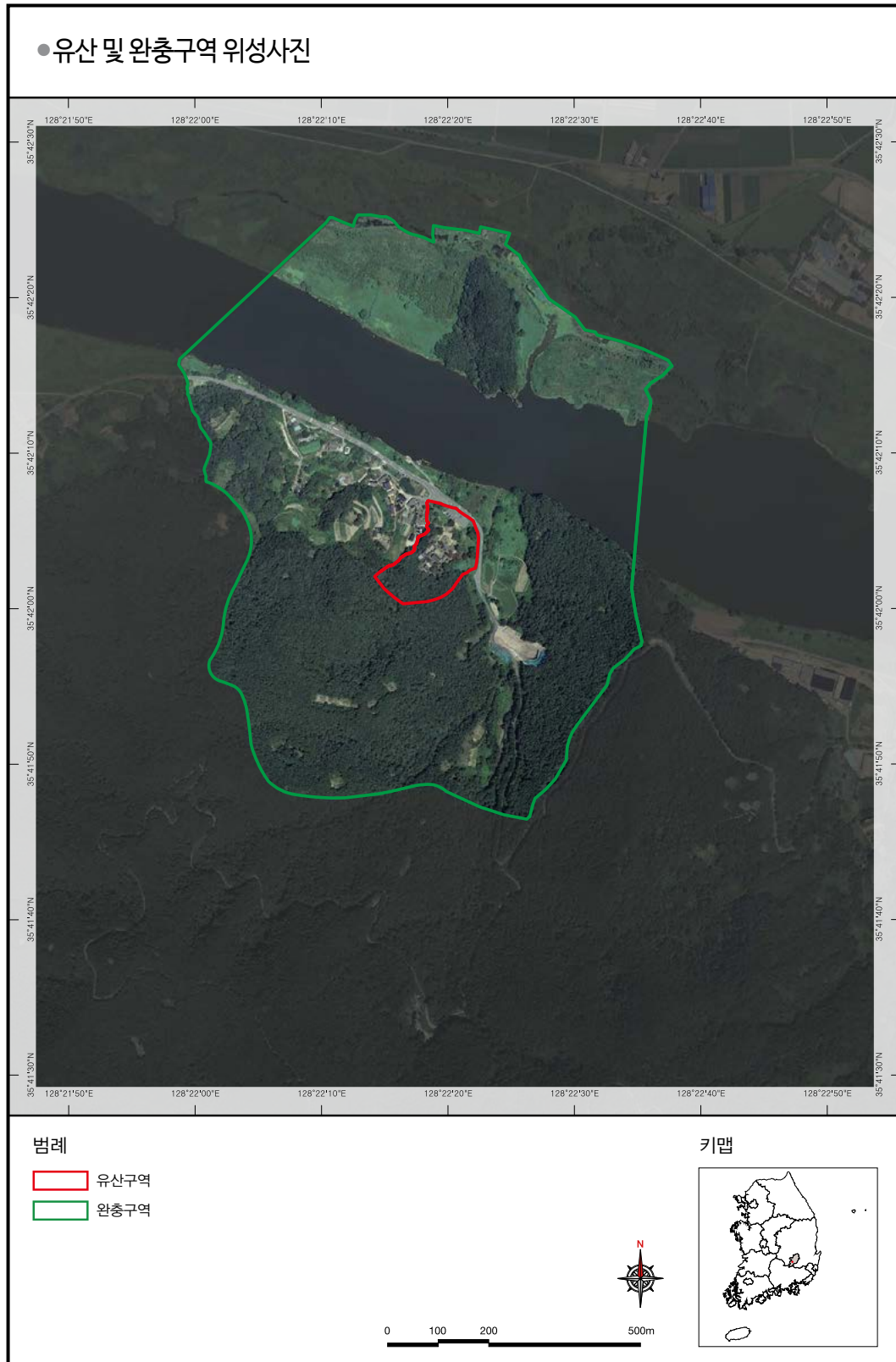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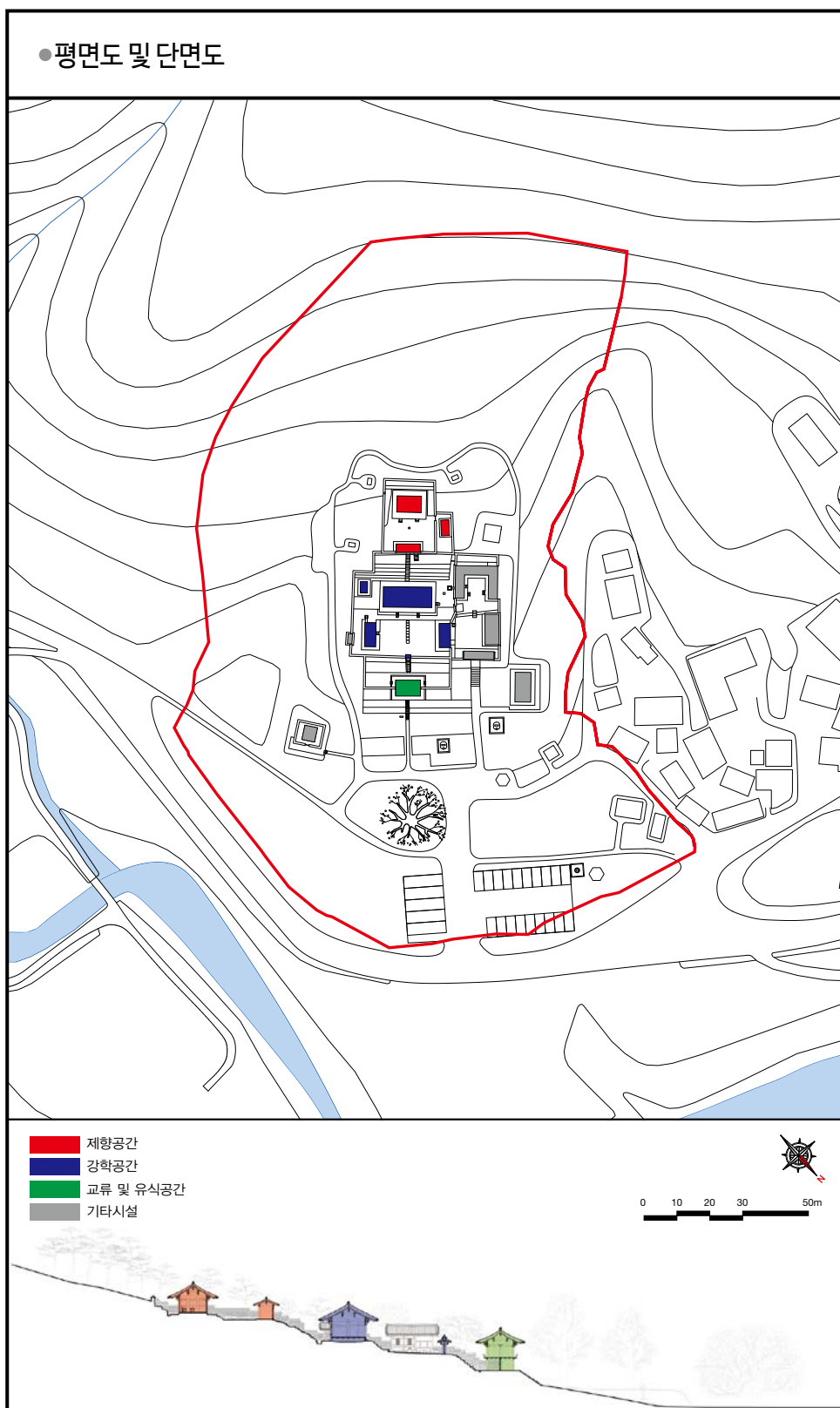
제향공간 / 강학공간 /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 기타

기록유산, 무형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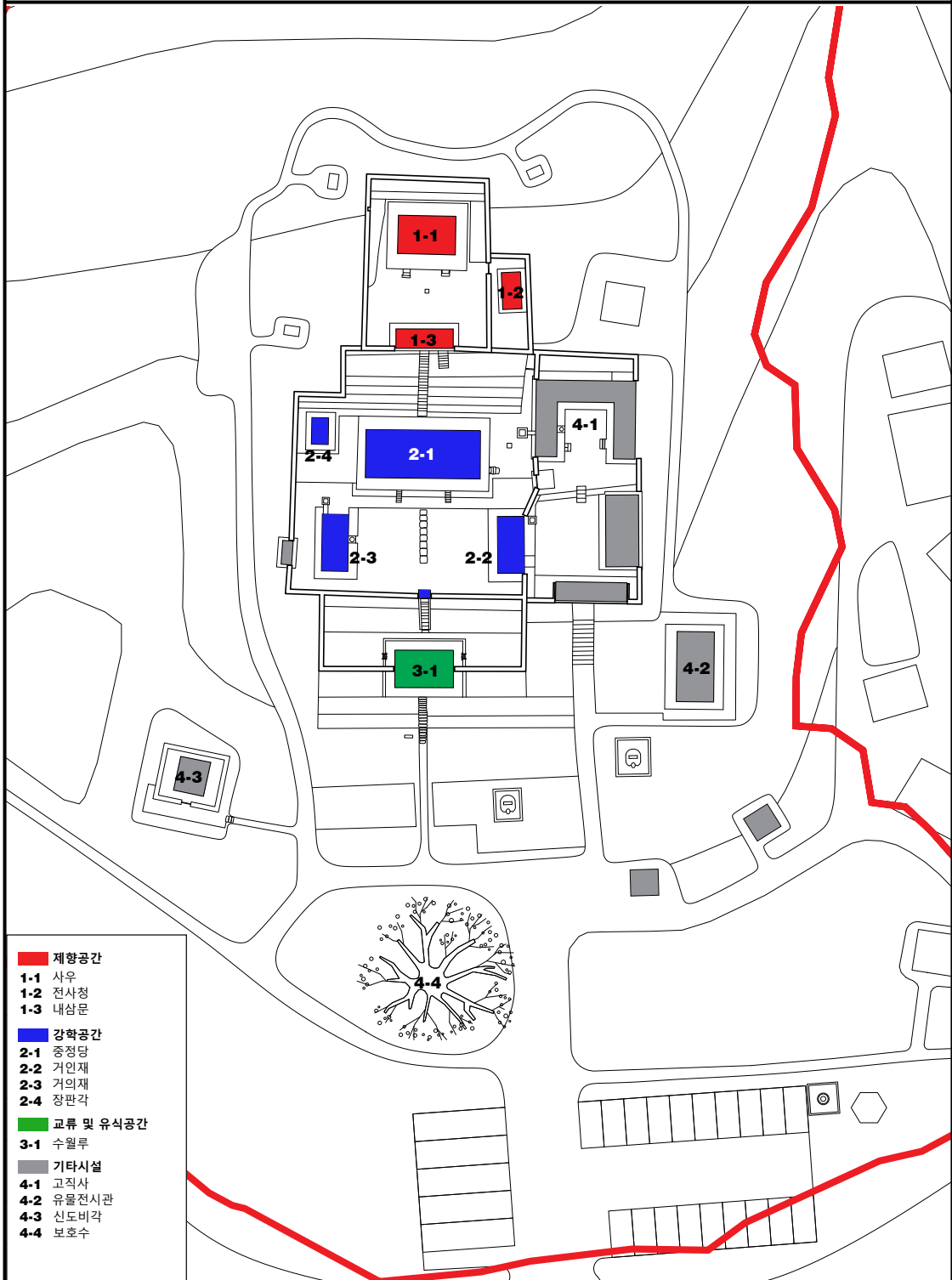
고문서 / 책 및 책판 / 현판 및 기문 / 제향의례

6. 도동서원





● 배치도



1) 건축물

제향영역



1-1

1-2

1-3

사우(1-1)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김굉필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정구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좌우에는 창건 당시에 그린 제향인물과 관련된 벽화 2점이 있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전사청(1-2)

제향과 관련된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내삼문(1-3)

제향공간의 진입문이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집이다. 자연석 석축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았으며,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였다. 또한 내삼문은 간단한 구조를 하고 있지만, 단청을 하여 신문의 격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강학공간



2-1

2-2

2-3

2-4

강당: 중정당(2-1)

보물 제350호. 서원의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중당 협실형(中堂 夾室型)이다. 전면에 반 칸 규모의 뒷간을 두었다. 원장과 원임의 개인 연구실과 학생의 강학을 위한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사: 거인재(2-2), 거의재(2-3)

동재인 거인재(居仁齋)와 서재인 거의재(居義齋)는 모두 3량 구조로 간결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2칸의 온돌과 1칸의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들에서 학생들은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거인과 거의는 맹자 이론에, 자신이 인(仁)에 머물러 의(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연유한다.

도서관: 장판각(2-4)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등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장서는 현재 보존관리를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다.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3-1

수월루(3-1)

서원으로의 진입공간으로 사용되는 문루로 향사나 서원의 행사시에 고자가 개좌와 파좌를 외는 곳으로 사용되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팔작지붕 건물로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있다. 누하에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누상에는 계자각 난간을 돌렸다. 1855년(철종 6) 창건되었으며, 서원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누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은 것으로, 1888년(고종 25) 화재로 소실되어 오랫동안 터만 남았다가 1973년에 복원되었다. 누각 아래가 출입문이지만 닫혀 있을 때는 관리사로 쓰이는 전사청을 통해 드나들어야 한다.



4-1	4-2
4-3	4-4

고직사(4-1)

조선시대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현재에도 사람이 상주하며 서원의 관리 및 보수정비에 관여하고 있다.

유물전시관(4-2)

서원 및 서원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도비각(4-3)

제향인물의 업적 및 서원의 건립 및 중수 경위를 기록한 기념비이다.

보호수 3-9(4-4)

약 400년된 은행나무(학자수)이다.

2) 기록유산·무형유산

| 고문서, 고서, 목판 |



도동서원창건시문적(중창사적) 道東書院創建時文蹟(重創事蹟)

▪년대: 1604~1720년 ▪크기: 36.5×22.5

창건초기부터 18세기 초기까지 도동서원 유생의 상서·소지 등의 문적들을 수합하여 새로이 정서한 것이다.

도동서원의 전신(前身)인 쌍계서원 건립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도동서원의 중건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입원록 入院錄

▪년대: 1610~1907년 ▪크기: 44.6×26.6

1610년(광해군 2)부터 1907년까지 도동서원 유생 명부로 입학한 일자와 유생 이름, 추천인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도동서원의 신중한 유생 추천과 엄격한 선발 절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봉안시제집사분정기 奉安時諸執事分定記

▪년대: 1610~1803년 ▪크기: 34×23.3

1610년(광해군 2)부터 1803년(순조 3)까지 도동서원의 각종 제례를 주관한 집사들의 명단으로 제례시 업무와 성명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서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명단 외에 정구(鄭逵, 1543~1620)의 배향을 청한 괄수하(郭壽夏) 등의 상서도 수록되어 당시 지역유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참제록 參祭錄

▪ 년대 : 1611~1651년 ▪ 크기 : 24.8×20.1

1611년(광해군 3)부터 1651년(효종 2)까지 도동서원에서 행해진 향사(享祀)나 묘제(墓祭) 등 각종 제례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이다. 당시 서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현풍 및 인근 지역 유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모두 8책이 있다.



노비안 奴婢案

▪ 년대 : 17세기 초~ 1702년 ▪ 크기 : 33.5×23

도동서원 소유 노비 기록으로 노비의 이름과 나이, 가족관계, 획득 경위 및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노비는 토지와 더불어 서원의 주요 경제기반으로 노비의 관리 및 서원의 경제규모 및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육영재완의절목 育英齋完議節目

▪ 년대 : 1787~1789년 ▪ 크기 : 35×24

주로 도동서원 육영재(育英齋)의 운영과 각종 교육 및 재정적 규범 등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로, 당시 도동서원에서 행해졌던 교육 활동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학계안 學稷案

▪년대: 1854~1867년 ▪크기: 32×29

1854년(철종 5)부터 1867년(고종 4)까지 학계(學稷)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명단으로 성명, 출생연도, 호를 기록하고 있다. 도동서원 학계는 계원간 학문증진이나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결성된 것으로 서원 유림들의 공의로 결성되었다.



도동서원 원생안 (모입안 · 자비안)

道東書院 院生案 (募入案 · 資費案)

▪년대: 19세기 이후 ▪크기: 35.6×29

도동서원 원속(院屬) 명부이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된 피역인(避役人)을 말하는데, 이들은 각종 역을 면제받는 대신 서원의 각종 잡무를 담당하거나 일정량의 예전(禮錢)을 납부하여 서원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원생안 7책, 모입안 3책, 자비안 2책 등이다.



도동서원전답대장 道東書院田畝大帳

▪년대: 1661년(현종 2) ▪크기: 35.5×31.5

1661년(현종 2)에 작성된 도동서원전답대장(道東書院田畝大帳)으로 도동서원 소유 전답의 규모를 알려준다. 현풍의 21개소와 고령의 3개소에 분포한 도동서원 소유토지를 원기(院基), 위전답(位田畝), 사기(寺基), 사위(寺位), 진전(陳田) 등 명목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당시 소유 전답 총량은 10결 43부 4속이었다.



도동서원전답수정기 道東書院田畝修正記

▪ 년대 : 1678년(숙종 4) ▪ 크기 : 36×21.5

1678년(숙종 4)에 현풍과 고령지역 24개소에 분포한 도동서원 소유 토지를 소재지별로 정리한 자료로 지번별로 경작자를 표기하고 있으며 도동서원전답대장과 더불어 17세기 중·후반 도동서원 전답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월차철물록 月次鐵物錄

▪ 년대 : 병진~기묘 ▪ 크기 : 22.2×2

병진년에서 기묘년까지 도동서원에 소속된 산직(山直)이 서원에 납부한 물품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이들은 피역의 대가로 서원측에 낫(鎌)과 도끼와 같은 현물 또는 전(錢)을 납부하고 있다. 납부규정을 비롯하여 월별 납부물품과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중수물력도총 重修物力都摠

▪ 년대 : 1803년(순조 3) ▪ 크기 : 34.7×23

도동서원 중수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을 출연한 여러 기관의 부조록이다. 현풍지역을 비롯한 인근 향교와 서원 및 문중 등이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시 도동서원의 중수가 인근 사림(士林)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현판, 기문 |



도동서원 道東書院

▪년대: 1610년(광해군 2) ▪크기: 40×160

도동서원이 사액 받을 때의 현판으로, ‘도동(道東)’은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뜻으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학문이 동방 도학의 조종(祖宗)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씨는 모정(慕亭) 배대유(裴大維, 1563~1632)가 썼다. 도동서원의 사액은 1607년(선조40)에 되었으나, 실제 사액편액은 1610년(광해군 2)에 내려졌다.



도동서원 道東書院

▪년대: 1607년(선조 40) ▪크기: 40×160

도동서원 강당 앞면에 걸린 편액으로, 1607년(선조 40) 정구가 퇴계 이황 (1501~1570)의 글씨를 집자하여 모각한 것이다.



중정당 中正堂

▪년대: 17세기 후반 ▪크기: 40×160

도동서원 강당 편액으로, ‘중정(中正)’은 주돈이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인용한 것으로,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글씨는 근곡(芹谷) 이관징(李觀徵, 1618~1695)이 썼다.



서도동서원액판하 書道東書院額板下

▪년대: 1607(선조 40) ▪크기: 98×250

1607년(선조 40) 도동서원을 건립한 정구(鄭逵, 1543~1620)의 글로 사액 현판과 정구가 이황의 글씨를 옮겨 새긴 현판을 함께 걸게 된 사유를 밝혀 두었다. 이 편액을 우러러 보고 김굉필의 학덕을 흠모하며, 도동(道東)의 전통이 오래도록 이어가기를 염원하는 내용이다.



백록동규 白鹿洞規

▪년대: 미상 ▪크기: 39×120

도동서원 강당(중정당)에 걸린 현판으로 주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학규(學規)와 학자십훈(學者十訓)이 기록되어 있다. 백록동규는 오교지목(五敎之目), 궁리지요(窮理之要),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를 기록하고, 학자십훈(學者十訓)을 추가해서 적어 놓았다.



전교 傳敎

▪년대: 17세기말 ▪크기: 40×150

1676년(숙종 2) 경연에서 서원 모입자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자 숙종이 문묘에 종향된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모입자에 대한 물침(勿侵)의 전교(傳敎)를 내렸는데 이 기문은 당시 숙종의 전교를 계판한 것이다.



서원규목 書院規目

▪년대: 1918년 ▪크기: 52×210

정구(鄭逵, 1543~1620)에 의해 제정된 도동서원학규(道東書院學規)를 새긴 것으로 서원의 제례를 비롯한 구성원의 임무 등 서원 운영의 제반 규범이 적혀있다. 다른 서원의 학규에 비해 내용이 매우 상세하며, 도동서원만의 독창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현판은 1918년에 다시 제작한 것이다.



환주문 喚主門

▪년대: 16세기 ▪크기: 40×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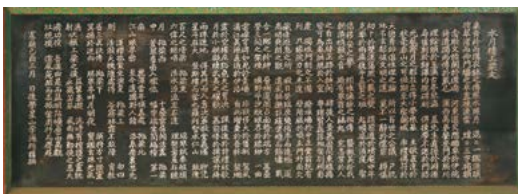
도동서원의 강학공간인 '중정당(中正堂)'으로 들어가는 문의 편액으로, '환주(喚主)'는 김굉필의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내 마음의 주인[자아(自我)]을 불러 항상 깨어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귀엽고 매력적인 구조물로 문과 담장이 보물 제350호로 지정되었다.



수월루 水月樓

▪년대: 1849년(헌종 15) 창건/1974년 중건
▪크기: 40×160

도동서원 2층 문루 편액으로, '수월(水月)'은 주희의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차가운 물에 달이 비치듯이 사욕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수월루는 1849년(헌종 15) 창건되어 몇 차례 중수를 거쳐 1974년 현재 모습으로 중건되었다.



수월루상량문 水月樓上梁文

▪년대: 1849년(헌종 15) ▪크기: 55×136

수월루의 건립 당시 이원조(李源祚, 1792~1872)가 지은 상량문으로 건립에 대한 감회와 경과를 기록하였다. 또 서원 밖의 넓은 백사장과 밝고 상쾌한 경치를 구경하면서, 궁극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향의례 |

묘제(墓祭)도 지내는 도동서원(道東書院)

대구 달성에 위치한 도동서원은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568년(선조 1) 쌍계서원으로 시작하였다. 1604년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았고, 1607년에 도동서원으로 사액 받았다. 문루와 강당, 사우를 잇는 전체적인 건축구성과 배치형식으로 한국 서원 건축 중에서 가장 규범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도동서원에서는 주자의 무이고사(武夷故事)에 의거하여, 춘추 향사 외에도 매년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서원 뒤에 있는 김굉필 묘소에서 향사를 지낸다. 그리고 성생례도 석상 위에 희생을 올려서 행하며, 사우 담장에 만든 감(坎)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운다. 또한 헌관이 작을 올릴 때마다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나누어 붓는 삼제(三祭)를 행하는 것도 이 서원의 특징이다.

희생의 상태를 살펴보는 성생례(省牲禮)

도동서원에서는 강당 옆에 만든 석상(石床) 위에 돼지를 올려놓고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세 번 묻는 성생례를 행한다. 현재는 석상에 돼지를 묶고 성생례를 행한다.

동문으로 들어가서 동문으로 나오는 헌관

도동서원에서는 동쪽으로 들어갔다 동쪽으로 나오는 동입동출(東入東出)이기 때문에, 헌관은 사우에 들어갈 때 동쪽 계단을 통해 동문으로 들어오고, 나올 때에는 동문을 통해 나와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외삼문의 경우, 중문과 동문에는 계단이 있으나, 서문에는 아예 계단이 없다.

술을 모사기에 세 번 나누어붓는 헌관

도동서원에서는 헌관이 작을 올릴 때마다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나누어 붓는 삼제(三祭)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서원에는 없는 모사(茅沙)가 향합 옆에 있다. 남계서원에서는 헌작마다 삼제를 하고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하나, 도동서원에서는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종헌례 후에 삼헌관이 함께 재배를 한다.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후 서쪽을 바라보고 재배하는 헌관

도동서원에서는 음복수조례에 초헌관이 사당 동문 앞에 마련한 음복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음복과 수조를 한 다음에 재배를 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초헌관이 음복과 수조를 한 후에 제자리로 돌아와 삼헌관만 재배를 하거나, 참사자 모두 재배를 한다.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망료례(望燎禮)

도동서원에서는 사우 서쪽 담장 중간에 구멍을 내어 만든 감(坎)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운다. 감은 보통 땅에 구덩이를 파서 만드는데, 도동서원만이 담장에다 만들었다.

주향위(主享位) 묘제(墓祭)

도동서원에서는 춘추 향사 외에도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서원 뒤에 있는 주향인 김굉필의 묘소에서 향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가을 묘제만 지내고 있다.

제사 음식을 맛보는 준례(餽禮)

도동서원에서는 향사를 마치고 신이 흠향한 음식을 모든 제관이 나누어 맛보며 신의 공덕을 기리는 의례를 행한다. 창출에 따라 세 번 헌관과 모든 제관의 잔에 술을 따르고 난 후 서로 읊하고 잔을 비우는 것으로 준례를 마치고 음복을 한다.